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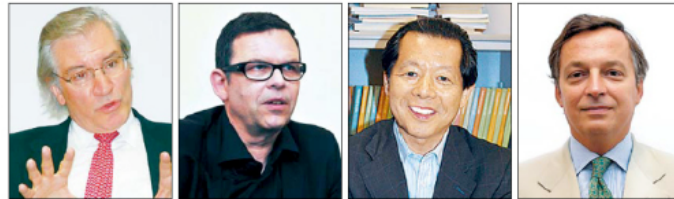
“녹색성장·환경지휘자 발굴을”

헤럴드경제 | 2010-07-29 11:26:26

글렌 UN미래포럼회장 강연
한국기업에 녹색디자인 조언
송재용 서울대 경영대교수
차별적 신성장동력 강조도

[제주=김영상·서은정 기자] 향후 세계를 이끌 '메가트렌드(Mega-Trends)'는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집단 지성'이 될 것이고, 기업이 아닌 개인이 권력의 주체로 부상하는 만큼 기업은 이를 적절히 활용,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기업이 녹색산업에 성과를 내려면 녹색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학계든, 생태계든 녹색지휘자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제주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1100여명이 참석, 하계포럼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포럼 둘째 날 강연자로 나선 글로벌 경영자 및 석학들은 이 같은 화두를 제시했다.



제롬 글렌 UN미래포럼 회장 피터 슈라이어 기아차 부사장 후나비시 요이치 아시아 주필 디에고 비스콘티 액센추어 회장

29일 '미래 바꿀 신사업'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자로 나선 제롬 글렌 UN미래포럼 회장은 미래 메가트렌드는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집단 지성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화 시대 이후를 '후기 정보화시대'라고 명명한 그는 "이 시대는 의식과 기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대로, 인간의 사이보그화가 나타나고 개인의 지적 역량이 기술과 결합해 집단 지성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도할 자격이 있다"며 "한국기업이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녹색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녹색전문가를 영입, 녹색 디자인에 나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보화시대에는 권력과 주도권이 기업에 있고 정보 및 서비스가 핵심이었다면, 미래에는 개인과 집단 지성이 주체로 떠오르고 연계, 결합(linkage) 등이 제품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에게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관리 | 서비스 약관/정책 | 권리침해신고 | 금융 고객센터 | 금융 문의하기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4752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09-서울용산-0871 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세훈
 전화 : 1577-3321 | 팩스 : 02-777-5111 | 고객센터 이용문의

Copyright (c) Daum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Daum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